

담당
지원자 소견

양00 이용인 행동 관찰 기록 요약 (4월)

*** 흥분 횟수 분석 (단순 흥분 및 기물 파손)**

3월 흥분 횟수 21회 대비 4월 흥분 횟수 5회로 빈도는 감소하였으나, 특정 자극(언어지원, 시각적 변화)에 대한 반응은 여전히 예민한 모습보임.

2일(목): 점심시간 중 이유 없이 소리를 지르며 흥분함. (4월의 첫 사례)

9일(목): 타 이용인(김석현)의 이동으로 주변이 시끄러워지자 소리를 지르며 흥분함.

23일(목): 술런보드를 세팅하는 직원들의 움직임을 보고 손가락질하며 흥분함.

24일(금): 센터 입소 거부 및 바닥에 앉아 움직이지 않는 등 고립적 흥분 상태 보임.

29일(수): 실습생 프로그램 시간 중 갑자기 흥분하여 책상을 강하게 내리침.

이용인 및 직원에 대한 도전적 행동 분석 (신체 공격)

3월 도전적 행동 15회 대비 4월 13회로 소폭 감소하였으나, 특정 이용인(김00)에 대한 타격 및 종사자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꼬집기, 얼굴 타격)이 빈번해짐.

2일(목): 술런 도중 진00 이용인을 때리고, 재차 흥분하여 노00 이용인까지 때리려고 시도함.

2일(목): 직원들의 대화 소리에 흥분하여 옆에 있던 김성관 직원을 때림.

21일(화): 갑작스러운 흥분으로 김00 이용인의 머리를 때림.

22일(수): 이동 중인 김00 이용인의 배와 등을 때림.

22일(수): 술런 진행 중인 김00 이용인과 이준성 사회복지무요원의 등을 때림.

23일(목): 칠판 글자를 지우던 김00 이용인의 등을 타격함.

23일(목): 분리 조치 중 책상을 치고 김00 직원의 허벅지를 꼬집고 얼굴을 때림.

23일(목): 갑자기 김00 이용인을 보고 달려가 때리려고 시도함. (직원 제지로 방어)

24일(금): 분리 과정 중 제지하는 이재현 사회복지무요원을 때림.

28일(화): 사회복지무요원의 "안 돼요" 소리에 흥분하여 옆에 앉아 있던 김00 이용인을 때림.
(전위반응)

29일(수): 부00 이용인을 보고 갑자기 달려들어 때리려고 시도함.

30일(목): 등원 직후 옆에 앉자마자 김00 이용인에게 달려가 다리를 때림.

4월 요일별 '때리려고 한 행동' 정리

4월 미수/돌진 횟수 요약:

총 3회 (모든 사례에서 직원의 즉각적인 제지로 실제 때리려는 행동을 예방함)

화요일

(특이사항 없음) : 화요일(21일, 28일) 발생한 도전적 행동은 예고 없이 즉각적인 행동으로 이어진 경우가 많았음.

수요일

29일: 활동실에서 두리번거리다가 부00 이용인을 보고 갑자기 달려들려고 함. (권00 팀장이 즉시 개입하여 사무실로 분리 조치 및 상담 진행)

목요일 (가장 빈번함)

2일: 술런 프로그램 도중 진00 이용인을 때린 후, 재차 흥분하여 노00 이용인까지 때리려고 시도함. (직원이 즉시 개입하여 그림 그리기 활동으로 유도하며 방어)

23일: 사무실에서 진정된 후 프로그램을 하려다 갑자기 김00 이용인을 보고 달려가 화를 내며 때리려고 함. (담당 직원이 달려가 신체적으로 제지하고 안아주어 진정시킴)

3. 종합 요약 및 패턴 분석

항목	2월	3월	4월	비고
단순 흥분	11회	21회	5회	빈도 대폭 감소
도전적 행동	9회	15회	13회	

주요 특징

목요일의 위험성: 4월 전체 도전적 행동 및 흥분의 약 50% 이상이 목요일에 집중되어 있음.

주말을 앞둔 피로도나 특정 프로그램(술런 등)과의 연관성이 의심됨.

공격 대상의 고착화: 3월에는 불특정 다수(임00, 부00 등)를 향하던 공격이 4월 들어 김무상 이용인 (총 5회 연루)에게 집중되는 양상을 보임.

직원 공격 양상 변화: 단순 팔 타격에서 꼬집기, 얼굴 때림 등 위해 강도가 높은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함.

트리거 지속: "안 돼요", "하지 마세요" 등 타인에게 향하는 부정적 언어 자극이 본인의 폭력으로 이어지는 '전위 공격' 패턴이 4월 28일에도 재확인됨.

□ 분석 및 현장 대응 포인트

1. '달려드는 거리'가 공격의 전조

4월 23일과 29일 사례를 보면, 특정 인물(김00, 부00)을 발견하고 '달려가는 거리'가 발생하여 이때가 골든타임이므로 대상자가 누군가를 응시하며 몸을 날리려 할 때, 즉각적으로 경로를 차단하거나 이름을 부르는 것이 타격을 막는 핵심일 듯 보임.

2. 목요일의 높은 예민도

실제 타격뿐만 아니라 '때리려고 하는 시도' 자체도 목요일에 집중되어 있음. 목요일은 이용인의 공격 에너지가 가장 높은 날로 판단되므로, 평소보다 관찰 인력을 근거리 배치할 필요가 있을듯함.

3. 미수가 실제 타격으로 변하지 않으려면?

시각적 차단: 23일 사례처럼 진정된 후에도 특정 인물을 '보고' 다시 달려드는 경우가 많음.

흥분 후 복귀 시에는 타겟이 되는 이용인(김00 등)이 보이지 않는 동선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안전할듯함.

안아주기 기법: 23일 제지 후 담당 직원이 '안아주어 진정'시킨 사례는 매우 효과적이었음.

강한 압박보다는 안정감을 주는 신체 접촉이 대상자의 공격 근육을 이완시키는 데 도움이 된 것으로 보임.

4. 4월 대비 변화

3월에는 주로 '옆에 앉은 사람'을 즉각 때리는 형태였다면, 4월에는 멀리 있는 이용인을 보고 달려가는 '추격형' 미수 행동이 나타나기 시작함.

이는 공격에 의도성이 강해지고 있음을 시사하므로 주의 깊은 관찰이 필요할듯함.

* 사회적 이야기 진행 시 상황에 맞는 선택 상황임을 알고 있으며 간혹 맞는 상황을 고르지 못할 경우 담당직원이 그 상황이 맞는 상황임을 꾸준히 설명하고 있음.

* 도전적 행동 및 흥분상황에 대해서 4월내용도 정리하여 마음0000 김00 원장님께 전달하여 이용인에게 맞는 방법을 찾는 중임.

* 가정과 연계하여 주말 일상 생활등 母가 담당직원에게 이용인의 컨디션과 가정에서 사소한것까지 정보제공을 하여 연계할 수 있도록 함.